



30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 /나영주 기자 mjna@kwangju.co.kr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이 30일 무안 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하고 있다. /최혜민 기자choi@kwangju.co.kr

사고 2일째 정부·경찰 사고 수습 총력...美 NTSB 참여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신원 미확인 시신 수습 10일 걸려...블랙박스 전문가 분석 자료 추출 방위각 시설·관제 기록·조류예방활동 인력 상황 등 사고 요인 조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틀째인 30일 정부와 경찰이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에 나섰지만, 시신 수습에만 10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원오 전남경찰청 무안 제주항공참사 수사본부장은 이날 무안공항 2층 대기실 브리핑에서 신원 미확인 시신 수습과 관련, "다음주 수요일(2025년 1월 8일)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1차 수습된 희생자 179명 희생자 시신은 훼손 상태가 심각하고, 이 가운데 5구만 온전한 상태라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5구만 가족에게 인도할 수 있는 상태다. 수사본부는 시신 인도에 앞서 각 사체의 신원 확인 파악에 나섰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유전자(DNA) 정보를 국립과학수사원으로 보내 검사를 의뢰했다. 구체적인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체 전체에 대한 DNA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일일이 검체를 채취하고 배양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7시 현재까지 사고 희생자 179명 중 33명의 시신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33명에 대한 시신 인도 절차는 사체 신원 확인이 완료된 이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 항공철도조사위원회(항철위)는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고 기체에서 확보한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중 FDR 외형이 일부 분리되는 등 훼손된 채 수거됐기 때문이다. 이들 장치는 '비행기의 블랙박스'로, 사고 직전 비행기의 상황과 사고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 자료로 꼽힌다. FDR에는 사고 이전 비행기의 속도와 고도, 비행 경로, 엔진 성능, 랜딩기어 작동 여부 등이 기록돼

있다. CVR에는 조종실 내의 승무원, 관제실 등과의 대화 내용, 경고음 발생 여부 등이 기록돼 있다. 외형이 훼손된 FDR로부터 자료를 어디까지 추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자료 훼손 정도가 심각할 경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보내 정밀 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이 경우 6개월 이상 자료 추출 작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두 블랙박스를 김포공항 시험 분석센터로 전달했으며, 전문가 분석을 거쳐 자료 추출 가능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는 NTSB 관계자 2명과 항공기 제작사 '보잉' 사 관계자 2명이 같은 날 밤 한국에 도착한 이후부터 시작했다. 이밖에 정부와 수사본부, 항철위는 무안공항 외곽의 방위각 시설, 관제 기록, 조류예방활동 인력

근무 상황 등 전반적인 사고 요인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내년 1월 3일까지 사고 비행기와 동일한 기종을 이용하는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비행기 101대를 전수조사해 항공기 엔진, 랜딩기어 등 주요요통 정비 이력 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유족분들의 성에는 10%도 안 차겠으나,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최대한 역량을 집중해 수습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264명 규모의 '무안 제주항공 참사 수사본부'를 꾸리고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협력해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를 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iyou@kwangju.co.kr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고귀한 생명 잃은 데 깊은 슬픔” 이른 아침부터 추모 발길

광주 5·18민주광장·무안 실내체육관에 합동분향소...희생자 애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틀째 광주·전남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잇따랐다. 30일 무안군 현경면의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합동분향소에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각각 1751명, 1693명의 조문객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오전 11시 무안 실내체육관은 분향소가 설치되기 전부터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헌화와 묵념에 나선 조문객들은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희생자들의 위패에서 눈을 떼지 못했으며, 조문을 마치고도 쭈뼛 자리 떠날 수 없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한 조문객은 국화 위에 어린 희생자를 위한 자동차 장난감을 놓아두고 그 조문객들의 마음을 울렸다. 변영옥(여·70·무안군 무안읍)씨는 아들이 현재 태국 여행 중인 터라 사고 소식이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으며 눈물을 삼켰다. 변씨는 "사고 소식을 듣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곧장 전화하니 다행히 전화를 받더라"며 "어린 아이들도 많았는데 자식 같은 사람들, 아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희생됐다. 가족을 잃었을 유족을 생각하면 참담하다"고 말 끝을 흐렸다.

노향량(여·64)·박수지(여·38)씨 모녀는 자주 방문하던 곳에서 참사가 발생해 더욱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박씨는 "우리가 가족끼리 여행을 자주 다녀서 12월 초에도 무안공항을 통해 외국여행을 다녀왔다"며 "한순간 가족들을 잃은 유족 심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다. 누구나 희생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끔찍하다"고 울먹였다. 같은 날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도 하루 종일 헌화 행렬이 이어졌다. 28년지기인 순천의 교사 부부의 사고 소식을 접한 박미경(58)씨는 분향소에 헌화한 뒤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시신 수습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 장례식도 언제 열릴지 모른다는 마음에 분향소부터 찾았다는 것이다.

박씨는 "친구 부부는 각각 지난해와 올해 명예퇴직을 하고 부부 동반 여행을 다녀오던 차였다. 교사 생활을 하면서 평생 동고동락한 친구였다"며 "다음 달 20일 전후로 같이 맛있는 것 먹자고 약속도 잡아 놨는데 이렇게 먼저 떠나면 어떡하냐"고 통곡했다. 마수연(여·33)씨는 불과 2주 전에 무안공항을 통해 대만을 다녀왔던 만큼 충격이 더욱 컸다고 눈물을 보였다. 마씨는 "뉴스 장면이 너무 익숙한 풍경이라 그런지 더 끔찍하게 느껴졌다. '나와 가족들에게 일어날 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며 "나처럼 최근 무안공항에 정규 노선이 취항했다고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괴롭다"고 한숨을 쉬었다.

광주·전남 각각의 지자체에서도 분향소를 운영했다. 광주의 경우 서구·남구·북구·광산구가 각 청사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전남에서도 무안에 설치된 정부 합동 분향소 이외에 22개 시군에 분향소가 설치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내년 1월 4일까지 1주일간 '사고 희생자 애도 기간'으로 정해 광주·전남 전역에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들은 애도를 표하는 검은색 리본을 달기로 했다. 광주전남기자협회도 이날 애도문을 내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에 위로 를 건넸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참사 희생자 대부분은 광주·전남 지역민들이며 동료 한 명도 있어왔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잃은 회원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오는 1월4일 자정까지 예정된 국가 애도기간 동안 검은 리본을 달고 취재와 제작 현장에서 임하겠다고 전했다. /유연재 기자 yiyou@장혜원 기자 hey1@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뭣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뭣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증암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주식매면분할 및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24년 12월 27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1주의 금액 10,000원 주식 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액 500원의 주식 20주로 분할하기로 하였으므로 주권을 가진 주주께서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월 내에 구 주권을 본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1일
주식회사 남원터보엔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혁신산단5길 73-9
대표이사 이병학

채권신고공고(1차)

신화마을협동조합은 2024년 12월 26일 조합원총회결의로 해산결의되었으므로 본 조합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5년 2월 28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조합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2월 31일
신화마을협동조합
전라남도 순천시 덕암2길 22-9 (덕암동)
청산인 최재곤

산행안내

1월4일(목)
▲광주호산회 1월 4일(목) [제687차]간월도 가리왕산 설경, 생태 탐방 및 정선 아우라지 둘레길 트레킹 04시 30분 중앙동 롯데마트 7주식장 출발 04시 45분 전월동 육교 밑 04시 50분 백운주재국 05시 롯데백화점 05시 15분 광주예술의전당 후문 010-4621-2166, 010-6702-9796 http://cafe.daum.net/gwangjuhosan

자본금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4년 12월 30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금의 총액 금100,000,000원 중 금16,000,000원을 감소하여 금84,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주식 1,600주를 매수후 유상소각 하여 발행주식총수 10,000주를 8,4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는바, 이 자본감소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구주권을 가진 사람은 위 기일내에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1일
주식회사 세진메디칼
광주광역시 동구 남포로 678, 4층 1호 (하동)
대표이사 김기연

72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先州日報

• 지역안내 •

북 구	• 통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알 선 571-7658	• 오 지 268-7601
	• 용 북 433-1503	• 우 선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현 222-9054
	• 중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651-1833
	• 북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신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 현 376-7153
	• 치 평 376-6511	• 문 현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문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현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선 944-0444	